나주시 왕곡면 지사협, 민관 협력으로 어르신 통합돌봄 강화

한우리요양원·해피에이징과 업무협약 체결



왕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합돌봄서비스 강화 업무협약 체결 사진 /나주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왕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노인복지시설과 사회적기업의 전문성을 연계해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나주시 왕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강미숙·김상모)는 지난 10일 한우리요양원·주간보호센터(대표 이성아), 사회적기업 ㈜해피에이징(대표 권경혁)과 지역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과 주민 중심의 통합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연계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역 노인복지시설인 한우리요양원·주간보호센터와 노인 낙상 예방 전문 사회적기업인 ㈜해피에이징이 참여해 건강관리와 생활 지원, 지역사회 나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한우리요양원·주간보호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설 입소자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친환경 양곡을 왕곡면 소규모 농가로부터 공급받아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증대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왕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지역 복지시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과 상생을 실천하기로 했으며 첫 활동으로 오는 27일 협의체 위원들이 한우리요양원을 방문해 시설 내 텃밭 가꾸기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성택 기자

담양, 대숲맑은 쌀 2년 연속 영국 수출

담양군의 대표 브랜드 쌀인 '대숲맑은 담양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영국 수출길에 올랐다.

담양군(군수 박종원)은 13일 담양군 통합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수출 상차식을 열고 영국에 공급할 2026년산 햅쌀 첫 물량 20톤을 실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은 담양군과 담양군 통합 미곡종합처리장이 지난해 9월 영국 현지 외식·유통업체 트리스톤과 수출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두 번째다. 2022년 준공한 담양군 통합 미곡종합처리장은 농산물우수관리시설(GAP)로 지정됐으며, 수출용 쌀을 가공하는 도정설비를 갖추고 있다. '대숲맑은 담양쌀'은 올해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다. /강종연 기자

화순군 화순읍, 화순소방서와 합동소방훈련 실시

화순군 화순읍(읍장 조영일) 행정복지센터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인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화순소방서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직원과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화재 발생 시 상황 전파 및 신고 ▲소화기와 옥내소화전을 활용한 초기 진압 ▲청사 내 근무자 및 민원인 대피 유도 ▲인명 구조 및 응급조치 등이다.

특히 화재 발생 초기의 신속한 상황 판단과 역할 분담에 중점을 두고, 소방 관계자의 지도 아래 소방시설 사용법과 대피 요령을 익히는 등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했다. /남호경 기자

영광사랑카드 5%+5% 캐시백 행사, 호응 속 진행 중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캐시백 조기 마감… 착한가격업소 혜택 지속



영광사랑카드5%+5%캐시백 행사 포스터 /영광군청 제공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국비 1억 4천만 원을 지원받아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기간 영광사랑카드 사용액의 5%를 추가 캐시백으로 지급하고, 착한가격업소에서 영광사랑카드 이용 시에도 5% 캐시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연계 캐시백 행사는 군민과 방문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조기 마감됐으며, 착한가격업소 이용 캐시백 행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당초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예정됐던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연계 행사는 영광사랑카드 이용이 크게 늘면서 계획보다 일찍 종료됐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착한가격업소에서 영광사랑카드로 결제하면 5% 캐시백을 추가로 지급하는 행사는 현재 진행 중으로, 군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연계 캐시백 행사에 보내주신 군민과 방문객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현재 진행 중인 착한가격업소 캐시백 행사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영광사랑카드를 활용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 촉진 정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광사랑카드 이용 확대를 통해 군민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와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김진 기자

장성군-국립장성숲체원, 치유관광 활성화 '맞손'

12일 업무협약… 체류형 치유관광, 캠프 공동 기획 및 운영키로

장성군이 12일 군청 상황실에서 국립장성숲체원과 산림치유 기반의 치유관광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한종 장성군수, 정종근 국립장성숲체원장을 비롯한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장성군의 관광자원과 국립장성숲체원의 산림복지 기반 시설을 결합해 체류형 치유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객 체류 시간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치유관광 및 체류형 캠프 공동 기획·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 기반 마련 △홍보 및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기간은 2년이며, 상호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국립장성숲체원은 산림교육과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 전문기관이다. 현재 방장산 장성산림교육센터와 '치유의 숲' 2곳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총 2회 선보인 산림복지 프로그램 '나는 숲으로'가 큰 인기를 끌었다. 장성군과 국립장성숲체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나는 숲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해 가족, 직장인들을 위한 캠프 등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해 볼 예정이다.



치유관광 육성 업무협약 사진 /장성군 제공

김한종 장성군수는 "국립장성숲체원과 긴밀하게 협력해 관광객이 오래 머물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체류형 치유관광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장성군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치유관광 프로그램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족과 직장인 등 대상별 맞춤형 캠프를 운영해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관광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김재섭 기자

